'한알몸짓'의 氣感動作과 한약의 藥性에 대한 비교 연구

이정원 · 김경철* · 신순식[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 · 진단학교실, 1 : 방제학교실

Comparative Study of Qi-sensational Movement of "Hanalmomjit" and the Properties of Materia Medica

Jeong Won Lee, Gyeong Cheol Kim*, Soon Shik Shin[1]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nd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 Department of prescriptionology

Directional words like "ascending(升, sheng)", "descending(降, jiang)", "floating(浮, fu)", "sinking(沈, chen) are technical terminologies of Oriental Medicine to express the directions of material medica functioning-at the phase of Qi-superiorly, inferiorly, exteriorly, and interiorly in human body, and are constituting one of the major principles in prescribing medicines. Lacking the objective methodology to measure or, at least determine Qi, However, we can not expect to secure meaningful data to verify those directional terms. This problematic situation caused chaotic discrepanc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f Oriental Medicine. Thus, adopting the method of dynamic meditation "Hanalmomjit" of Lux Vitae meditation society, by which various state of Qi-sensational movements can be expressed, we compared its moves with the directional terms of traditional canons in Oriental Medicine. In this thesis, the experiment of expressing materia medica via "Hanalmomjit" is resulted out and compared with the terms, confirmed to have a certain meaningfulness. The new method showed these results below: Herba Menthae, described to have the disposition of ascending and floating, showed 60% of ascending movements in "Hanalmomjit" experiment. Radix Rehmanniae Praeparata, described to have the disposition of descending and sinking, showed 50% of descending movements. Radix Glycyrrhizae, described to have plain disposition, showed 60% of central movements. Rhizoma Atractylodis and Pericarpium Citri Reticulatae, described to have the disposition of ascending and floating, showed also ascending movements. Cortex Magnoliae Officinalis, described to have the disposition of descending and sinking, showed also descending movements. In conclusion, qi-sensational movement of "Hanalmomjit" for materia medica showed sufficient relations described in classics, proving itself to be useful method for objective demonstration of material medica.

Key words : Hanalmomjit, Qi-sensational Movement, Rhizoma Atractylodis, Pericarpium Citri Reticulatae

서 론

한약은 氣味論、升降浮沈、歸經、補瀉 등의 한약이론을 바탕으로 그 효능을 예측하고 이를 임상에 응용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升降浮沈은 한약이 몸의 上、下、表、裏에 작용하는 작용방향을 가리킨다[1,2]. 이는 임상에서 처방을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李杲(金元, 1180-1251)는 "氣味薄者, 輕清成象, 本乎天者, 親上也. 氣味厚者, 重濁成形, 本乎地者, 親下也"[3]라고 하여 한약의 氣味가 升降浮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였다.

한약의 升降浮沈은 기존 문헌의 기록자료에 의하거나 임상결과로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록자료는 역대 의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고, 임상결과는 한의사마다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升降浮沈의 근간이 되는 氣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약의 승강부침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절실하다. 한약의 승강부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한 방법론으로 생명빛 연구회의 한알몸짓에서 시행하고 있는 氣感動作을 이용하였다. 한알몸짓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自發動功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다른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3-850-8649

· 접수 : 2005/01/27 · 수정 : 2005/02/25 · 채택 : 2005/03/24

動功처럼 미리 짜여진 격식과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에 스스로를 내 맡기는 색다른 功法이다[4]. 한알몸짓은 외부적 존재의 氣적 상태를 氣感動作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氣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관적 느낌으로만 표현되던 것들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5].

따라서 저자는 한약에 대한 한알몸짓의 氣感動作이 한약의 升降浮沈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문헌의 한약의 승강부침이 한알몸짓의 氣感動作과 일정부분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발표하는 바이다.

재료와 방법

1. 실험일시

1) 첫 번째 실험 : 2004년 9월 17일 목요일 14:00-18:00
2) 두 번째 실험 : 2004년 10월 2일 토요일 14:00-18:00
3) 세 번째 실험 : 2003년 10월 30일 목요일 14:00-18:00

2. 실험장소

1) 첫 번째 실험 : 부산시 진구 양정2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기공실
2) 두 번째 실험 : 창원시 상남동 2-7 금탑빌딩 2F 생명빛 한의원
3) 세 번째 실험 : 부산시 진구 양정2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기공실

3. 실험재료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은 (주)화림제약에서 구입한 熟地黃、薄荷、甘草와 (주)약산양행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재질의 약품용기 빈병을 사용하였으며, 세 번째 실험은 (주)금강제약에서 구입한 蒼朮、陳皮、厚朴、甘草와 종이박스를 사용하였다.

4. 실험대상자

첫 번째 실험은 수련여부와 관계없이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실험은 생명빛 수련을 6개월 이상 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 번째 실험은 생명빛 수련을 4개월째 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성별、연령、학년별로 보면, 20대의 특정질환이 없는 건강한 학생들이었다.(Table 1)

Table 1. 실험대상자 분포

	성비		연령								학년					
	남	여	18	19	20	21	22	23	24	25	예1	예2	본1	본2	본3	본4
첫 번째 실험	5	5	1	0	3	2	3	0	1	0	5	0	2	3	0	0
두 번째 실험	2	0	0	0	0	1	0	0	0	1	0	0	2	0	0	0
세 번째 실험	2	2	0	0	0	0	3	0	0	1	0	0	4	0	0	0

5. 실험방법

첫 번째 실험은 실험한약을 속의 내용물을 알 수 없게 봉에 넣었다. Fig. 1 임의의 순서대로 실험한약을 놓고 실험대상자 10명이 그 한약을 느껴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한알몸짓의 기감동작을 표현하게 하여 그 패턴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이하 실험 I 이라 칭함).

두 번째 실험은 생명빛 연구회의 수련방법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학생 2명이 실험 I 과 같은 방식으로 실험하였으며, 실험 시작후 일정한 패턴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감동작을 표현하였으며, 10분 간격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이하 실험 II라 칭함).

세 번째 실험은 생명빛 연구회의 수련방법으로 4개월 수련을 하고 있는 학생 4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약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氣感동작을 연습한 후, 한알몸짓으로 기감동작을 표현하였다. 실험한약을 속의 내용물을 알 수 없게 종이로 봉한 뒤(Fig. 2), 가로 90㎜、세로 90㎜、높이 110㎜의 종이상자 속에 넣어 실험대상자들이 내용물을 알 수 없게 이중 처리하였다(Fig. 3). 임의의 순서대로 실험한약을 놓고 실험대상자가 그 한약과 교감하여 한알몸짓으로 기감동작을 표현하게 하여 그 패턴을 정리하였으며, 각자의 기감동작을 모아 정리하였다(이하 실험III이라 칭함).

세 실험 모두 저자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이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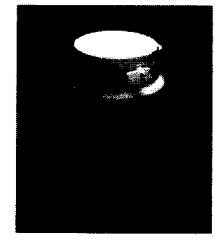

Fig. 1 실험 I , II에 사용된 플라스틱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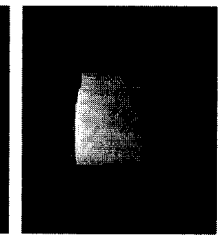

Fig. 2. 실험III에 사용된 한약을 봉한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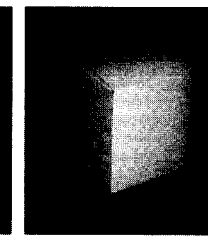

Fig. 3. 실험III에 사용된 종이상자

6. 한알몸짓 표준

실험은 모두 한알몸짓의 기감동작을 상향、중、하향의 3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한알몸짓에서 명치(鳩尾)위로 몸짓이 나오는 것을 상향으로 판정하였고, 명치에서 배꼽(神闕)까지 몸짓이 나오는 것을 중으로 판정하였으며, 배꼽 이하로 몸짓이 나오는 것을 하향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실험 I

1) 薄荷

薄荷는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6명이었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3명이었으며,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1명이었다.

2) 熟地黃

熟地黃은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1명이었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4명이었으며,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는 5명이었다.

3) 甘草

甘草는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3명이었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6명이었으며,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는 1명이었다.

4) 빈통

빈통은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가 1명이었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패턴은 5명이었으며,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인 경우는 4명이었다.

이상을 상향하는 느낌、중앙의 느낌、하향하는 느낌으로 분류하였다.(Table 2)

Table 2. 실험 I 결과

	薄荷	熟地黃	甘草	빈통
上向	6	1	3	1
中央	3	4	6	5
下向	1	5	1	4

2. 실험 II

1) 薄荷

(1) 실험시작 직후 - 실험시작 직후 학생A는 몸을 숙였다 폈다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학생B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몸짓을 하였다.

(2) 실험시작 10분후 - 학생A는 완전히 앉아서 몸짓을 하였고, 학생B는 전체적으로 상부쪽으로 올라가는 몸짓을 하였다.

(3) 실험시작 20분후 - 학생A는 계속 앉아 있는 상태였으며, 학생B는 여전히 서서 상부에서 몸짓을 하였다.

(4) 실험시작 30분후 - 학생A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났으며, 학생 B는 여전히 서서 상부에서 몸짓을 하였다.

(5) 실험시작 40분후 - 학생A도 계속 서 있는 상태로 상부에서 몸짓을 하였으며, 학생 B도 계속 상부에서 몸짓을 하였다.

2) 熟地黃

(1) 실험시작 직후 - 학생A는 약간 움츠렸다가 상층부로 몸짓을 하였고, 학생 B는 조금씩 앉았다.

(2) 실험시작 10분후 - 학생 A도 앉아서 몸짓을 하였고, 학생 B는 한번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몸짓을 하였다.

(3) 실험시작 20분후 - 학생 A는 계속 앉아서 몸짓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 B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으나, 계속 아래로 내려오는 몸짓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Table 3에 요약하였다.

Table 3. 실험 II결과

薄荷	시작 직후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40분 후	종합
A	↓↑	↓	↓	↑	↑	30분 후
B	↓↑	↑	↑	↑	↑	모두 상향
熟地黃	시작 직후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40분 후	종합
A	↓↑	↓	↓			10분 후
B	↓	↓	↓			모두 하향

* 상향은 ↑, 하향은 ↓, 하향후 상향은 ↓↑로 표기함.

3. 실험III

1) 蒼朮

학생 A는 둥근원을 그리면서 퍼지는 느낌과 가슴에서 등 뒤까지 손이 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B는 중상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와 바깥쪽으로 조금 강한 느낌으로 뻗쳐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C는 가슴쪽, 또는 그 이상에서 둥글게 돌다가 바깥쪽 위쪽으로 젖혀지면서 휘젓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D는 위쪽과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을 받았다.

2) 陳皮

학생 A는 손이 약간 따뜻하면서, 가슴에서 밖으로 퍼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B는 중간부위에서 맴돌다가 밖으로 뻗으며 물결을 타는 듯한 기분으로 율동을 계속하고 조금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학생 C는 중간쯤에서 물결의 출렁거림 같은 부드러운 곡선운동을 하였으며, 허리이상 차 있는 따뜻한 물의 수면을 쓰다듬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D는 위로 계속 뻗어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3) 厚朴

학생 A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변을 훑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B는 전체적으로 대칭적 운동을 하였으며, 아래로 내려오다가 중앙으로 다시 돌아왔다. 학생 C는 소용돌이 치는 느낌이며 전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학생 D는 아래로 향하면서 부드럽게 사방으로 퍼지는 느낌을 받았다.

4) 甘草

학생 A는 중간쯤에서 물컹하면서 손안에 동그란 무엇인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 B는 중하부위에서 작용하고 조금 뜨는 듯 하다가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었고, 옆으로 퍼지는 느낌도 있었다. 학생 C는 따뜻하면서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가슴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왔다갔다 하는 물이든 큰 공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학생 D는 아래로 향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등 두루 두루 미치는 느낌이었다.

고 찰

실험에 사용된 한약의 升降浮沈에 대한 역대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薄荷는 ≪藥性賦≫에 "味辛, 性凉, 無毒. 升也, 陽也."[6]라 하였고, ≪本草蒙筌≫에 "味辛, 苦, 氣溫,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7]라 하였다. 또한 ≪藥鑒≫에 "氣溫, 味辛, 氣味俱輕, 升也, 陽也."[8]라고 하였고, ≪景岳全書≫에 "味辛微苦, 氣微凉. 氣味俱輕, 升也, 陽也."[9]라고 하였으며, ≪本草新編≫에 "薄荷, 味辛, 苦, 氣溫, 浮而升, 陽也, 無毒."[10]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本草發揮≫에 "≪主治秘訣≫云: 性凉味辛. 氣味俱薄, 浮而升, 陽也."[11]라 하였다.

熟地黃은 ≪藥性賦≫에 "味甘, 苦, 性溫, 無毒. 沈也, 陰也."[6]라 하였고, ≪藥鑒≫에 "氣寒, 味甘苦, 無毒, 氣薄味厚, 沈也, 陰中陽也."[8]라 하였다. 또한 ≪景岳全書≫에 "味甘微苦, 味厚氣薄, 沈也, 陰中有陽."[9]이라 하였고, ≪本草新編≫에 "味甘, 性溫, 沈也, 陰中之陽, 無毒."[10]이라고 하였으며, ≪本草發揮≫에 "性溫, 味苦, 甘, 氣薄味厚. 沈而降, 陰也."[11]라 하였다.

甘草는 ≪藥性賦≫에 "味甘, 平, 無毒."[6]이라 하였고, ≪本草蒙筌≫에 "味甘, 氣平. 生寒炙溫, 可升可降. 陰中陽也."[7]라 하였다. 또한 ≪藥鑒≫에 "氣平味甘, 陽也."[8]라 하였고, ≪景岳全書≫

에 "味甘氣平, 生凉炙溫, 可升可降, 善于解毒."[9]이라 하였으며, ≪本草新編≫에 "味甘, 氣平, 性溫, 可升可降, 陽中陽也."[10]라 하였다. ≪本草發揮≫에는 "成無己云: 甘草甘平以除熱."[11]이라 하였다.

蒼朮은 ≪藥鑒≫에 "氣溫, 味甘辛, 氣薄味厚, 無毒, 可升可降, 陽也."[8]라 하였고, ≪景岳全書≫에 "味苦甘辛, 性溫而燥, 氣味俱厚, 可升可降, 陽也."[9]라 하였으며, ≪本草發揮≫에 "又云: 蒼朮體輕浮, 氣力雄壯."[11]이라 하였다.

陳皮는 ≪藥性賦≫에 "可升可降, 陽中之陰也."[6]라 하였고, ≪藥鑒≫에 "氣溫, 味辛味苦, 氣薄味厚, 無毒, 可升可降, 陽中之陰也."[8]라 하였다. ≪本草新編≫에 "陳皮治高, 清皮治低."[10]라 하였고, ≪本草發揮≫에 "≪主治秘訣≫云: 性寒味辛, 氣薄味厚, 浮而升, 陽也."[11]라 하였다.

厚朴은 ≪藥性賦≫에 "味苦, 辛, 性溫, 無毒. 可升可降, 陰中陽也."[6]라 하였고, ≪本草蒙筌≫에 "味苦, 辛, 氣大溫. 屬土, 有火. 陰中之陽, 可升可降, 無毒."[7]이라 하였다. 또한 ≪藥鑒≫에 "氣溫, 味苦, 無毒, 氣味俱薄, 可升可降, 陰中陽也."[8]라 하였고, ≪景岳全書≫에 "味苦辛, 氣大溫, 氣味俱厚, 陽中之陰, 可升可降."[9]이라 하였으며, ≪本草新編≫에 "厚朴, 味甘, 辛, 氣大溫, 陰中之陽, 可升可降, 無毒."[10]이라 하였다. ≪本草發揮≫에 "成聊攝云: 厚朴之苦, 以泄腹滿. 又云: 燥淫於內, 治以苦溫, 厚朴之苦以下結燥. …… ≪主治秘訣≫云: 性溫味苦, 氣味俱厚, 體重濁而微降, 陰中陽也."[11]라 하였다.

이상을 升浮、沈降、可升可降、平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문헌에 기재된 한약의 升降浮沈 요약

	薄荷	熟地黃	甘草	蒼朮	陳皮	厚朴
藥性賦	↑	↓	↔	×	↔	↔
本草蒙筌	↑	×	↔	×	×	↔
藥鑒	↑	↓	↔	↔	↔	↔
景岳全書	↑	↓	↔	↔	×	↔
本草新編	↑	↓	↔	×	×	↔
本草發揮	↑	↓	↔	↑	↑	↓

* 升浮는 ↑, 沈降은 ↓, 可升可降、平은 ↔, 문헌에 升降浮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찾지 못한 것은 ×로 표기함.

이상에서 薄荷는 升浮, 熟地黃은 沈降, 甘草는 平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蒼朮은 升浮가 1개, 可升可降이 2개의 문헌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可升可降은 모두 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升浮의 氣象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陳皮는 升浮가 1개、可升可降이 2개의 문헌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기의 可升可降은 모두 陽中之陰이라 하여 陽이 主임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陳皮도 升浮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厚朴은 沈降이 1개, 可升可降은 5개의 문헌에서 나왔다. 厚朴의 可升可降은 陰中之陽이 4개, 陽中之陰이 1개의 문헌에서 나온 것으로 陰이 主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厚朴은 沈降의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실험 I 에서 한알몸짓의 기감동작으로 표현된 薄荷는 10명중 6명이 상향, 3명이 중앙, 1명이 하향하는 몸짓을 하여 상향하는 氣象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熟地黃은 상향 1명, 중앙 4명, 하향 5명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甘草는 상향 3명, 중앙 6명, 하향 1명으로 중앙에서 작용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빈통은 상향 1명, 중앙 5명, 하향 4명으로 중앙과 아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것은 기존 문헌에서 薄荷는 升浮, 熟地黃은 沈降, 甘草는 平이라는 내용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통은 대조군으로 하였는데, 중앙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강했다. 아무것도 없는 통 안의 氣象을 느꼈을 때, 공기의 氣象이 표현되었을 것이며, 이것은 중력에 의한 하강의 느낌이 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었다.

실험 II는 한알몸짓으로 한약의 氣象을 표현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표현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첫 번째 薄荷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두 번째 熟地黃을 할 때는 10분 만에 거의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처음보다 두 번째 실험에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 것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자의 몸이 정돈되지 않아서 실험 중 몸을 정돈하는 몸짓이 섞여 나왔다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으로 어느 정도 몸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험 II를 통하여 한알몸짓으로 한약의 기감동작을 표현할 때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한약의 藥性을 기감동작을 표현할 때, 10분 이상의 한알몸짓을 함으로써 한약의 氣象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III은 생명빛 연구회의 수련방법으로 4개월 수련을 하고 있는 학생 4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약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기감동작을 연습한 후, 한알몸짓으로 한약의 기감동작을 표현하였다. 실험결과, 4명이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 주었다. 蒼朮、陳皮는 상향하는 몸짓이, 厚朴은 하향하는 몸짓이, 甘草는 중앙에서 몸짓이 나왔다. 이는 蒼朮、陳皮가 升浮의 성향을, 厚朴은 沈降의 성향을, 甘草는 平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기존 문헌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한약별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薄荷는 기존 문헌에는 升浮의 성향이 있다고 하였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상향으로 표현된 것은 60% 정도의 경향성이 있었다. 熟地黃은 기존 문헌에는 沈降의 성향이 있다고 하였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하향의 몸짓으로 표현된 것은 50% 정도의 경향성이 있었다. 甘草는 平한 약성으로 기존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중앙으로 표현된 것은 60% 정도의 경향성이 있었다. 蒼朮과 陳皮는 기존 문헌에서 升浮의 藥性을 가지고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는 상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厚朴은 기존 문헌에서 沈降의 藥性을 가지고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는 하강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약에 대한 한알몸짓의 기감동작은 기존 문헌에 있는 한약의 藥性과 많은 부분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 론

한약에 대한 한알몸짓의 氣感動作을 통하여 이것이 기존 문헌에 있는 한약의 藥性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薄荷는 기존 문헌에는 升浮의 성향이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상향으로 나타난 것은 60%의 경향성이 있었다. 熟地黃은 기존 문헌에는 沈降의 성향이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하향으로 나타난 것은 50%의 경향성이 있었다. 甘草는 기존 문헌에는 그 藥性이 平하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중앙으로 나타난 것은 60%의 경향성이 있었다. 蒼朮과 陳皮는 기존 문헌에서 升浮의 藥性이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상향의 형태로 나타났다. 厚朴은 기존 문헌에서 沈降의 약성이 있고, 한알몸짓의 실험에서 하강의 형태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약에 대한 한알몸짓의 氣感動作은 기존 문헌에 나타난 한약의 藥性과 관련성이 충분히 있으며, 한알몸짓의 기감동작은 한약의 약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辛民敎 編著. 臨床本草學. 修訂版. 서울: 永林社, pp.122-141, 2000.
2. 雷載權、張廷模 主編. 中華臨床中藥學(上卷). 第1版 第1次印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3-109, 1998.
3. 李杲. 東垣醫集 東垣試效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90, 1995.
4. 이동현. 건강기공. 서울: 정신세계사, pp.260-261, 1990.
5. 이정원 外. 한알몸짓을 통한 본초의 연구방법 제안. 대한의료기공학회지 7(2):139, 2004.
6. 王可成 編著. 藥性賦.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p.26, 67, 82, 134, 143, 1996.
7. 陳嘉謨 撰. 中國醫學大成續集 v.5 本草蒙筌.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卷1-149, 卷2-137, 卷4-313, 2000..
8. 杜文燮 著. 藥鑒.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p.30, 35, 44, 46, 47, 48, 1996.
9. 張介賓 著. 景岳全書. 서울: 鼎談, p.1008, 1014, 1023, 1035, 1999.
10. 陳士鐸 著. 本草新編. 北京: 中國中醫葯出版社, p.44, 52, 157, 249, 293, 1996.
11. 徐彥 輯. 歷代本草精華業書 v.2 本草發揮.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卷1-12A, 卷1-12B, 卷1-13B, 卷3-5A, 卷3-25A, 卷3-33B, 1992.